

주공화

전통 미덕 이야기

● 등령령 지음

연변인민출판사

주공회

전통미덕이야기

● 김영애 지음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박정근

책임교정: 배금희

图书在版编目(C I P)数据

传统美德故事/宏云主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7 ISBN 7-80698-630-8

I. 传... II. 宏... III. 儿童文学—故事—作品集
—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076006号

中华传统美德故事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毫米 1/32 印张: 11.375 字数: 30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630-8 / I · 92 (民文)

版次: 2005年12月第1版

2005年12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8.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 례

정위가 바다를 매우다	1
례의를 지켜 공로를 남한테 돌린 범문자	5
과부(夸父)가 해를 쫓다	7
몸으로 얼음장을 녹여 잉어를 잡다	10
예가 해 아홉개를 쏜다	14
반초가 서역에 파견되다	18
우공이 산을 옮기다	21
먹어보지 않고 자두 맛을 알다	27
섣나무우에 누워 쓸개를 맛보다	29
대들보에 머리를 매달고 책을 읽다	37
소무가 양을 방목하다	39
초가집을 세번 찾아가다	45
악비의 어머니가 자자를 하다	49
흠쳐온 음식은 먹지 않는다	54
재능을 보고 사람을 쓰다	56
쫄소리를 달갑게 받아들이는 좌옹	59
제위왕이 추기의 풍간을 받아들이다	61
장량이 무예를 익히다	67
제영이 상소하다	71



학문을 닦아 업적을 쌓은 려몽	75
송곳으로 허벅다리를 찌르며 분발한 소진	79
닭울음소리에 맞춰 깨어난 조적	84
반디불을 밝히고 책을 읽은 차윤	87
봉급앞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다	90
헌지가 서예를 배우다	93
한신이 밥을 빌어먹다	97
스승을 공경하며 가르침을 받다	99
의지가 굳고 성품이 강직한 교현	102
던져주는 음식은 먹지 않다	105
충명하고 레절이 바른 공융	108
쇠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들다	111
말가죽으로 시체를 싸다	114
아버지 대신 군대에 나간 화목란	118
왕소군이 흉노에 시집가다	121
잘못을 고치고 새 출발한 주처	125
과감히 바른말을 한 위정	129
산을 쪼개고 어머니를 구하다	132
목대가 센 동선	137
벽을 뚫어 빛을 빌다	142
격장법으로 장의를 분발하게 하다	144
풍환이 민심을 사오다	150
관중과 포숙아의 정분	156
죽음으로 절개 지킨 문천상	161
《먼저 천하의 근심을 근심하다》	164
사욕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일한 제준	166



왕면이 그림 그리기를 배우다	169
눈빛을 빌어 책을 읽은 손강	173
민족영웅 정성공	175
주나라 쌀은 먹지 않다	177
주인없는 배는 먹지 않다	180
숨지는 그날까지 혼신 다 쏟은 제갈량	183
청렴결백한 호걸 우겸	186
가도가 《추고》를 하다	190
《경침》을 베고 학문을 닦은 사마광	193
생사지교	196
안면을 돌보지 않은 포중	198
도간이 벽돌을 나르다	203
금나라에 항거한 민족영웅 악비	207
회초리를 짊어지고 사죄하다	213
장영과 6척골목	217
포부만 있으면 꼭 성공한다	220
림축서와 《하지 말아야 할 다섯가지》 원칙	223
문후왕이 단간목을 스승으로 모시다	225
죽간이 끊어지도록 책을 읽은 공자	228
강직하고 아침할줄 모르는 해서	230
정의를 위해 한목숨 바친 사가법	232
황학루에서 붓을 내려놓은 리백	235
만권의 책을 읽으면 붓에 신이 들린다	238
자신의 효행으로 소년을 감화시킨 룡룡기	241
리백이 권세가들을 조롱하다	243
구방고를 천거한 백락	246



굴욕을 참고 《사기》를 써낸 사마천	248
배도가 옥띠를 돌려주다	251
흉노를 물리친 소년장군 광거병	253
편안한 때에도 우환을 잊지 않은 위강	256
늙은 말이 길을 안다	259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르친 등모렴	261
강현을 너그럽게 용서해준 삭막	264
제갈량이 스스로 관위 세급을 낮추다	266
사람을 너그럽게 대한 주충	268
치욕을 참아가며 중임을 떠멘 룽손	270
고심히 연찬하여 《서성》이 된 왕희지	273
진정으로 계모를 감동시킨 민자건	276
간단한 규정을 약정하다	278
친구의 재물을 감추지 않은 채린	281
제 집에 돌아온것처럼 마음 편한 대접을 받다	284
천하에 뜻을 두다	286
책은 펼치기만 해도 리롭다	288
쌀을 배여날라 어머니께 효도한 자로	290
어머니를 찾아 만리길을 간 안응우	292
아버지의 종기를 빨아낸 척발굉	294
척계광이 왜구에 항거하다	296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다	297
굴원이 먹라강에 몸을 던지다	300
안영이 사절로 초나라에 가다	305
천리밖에서 작은 선물 보내다	309
물귀신에게 색시를 구해준다	313



상앙이 변법을 실시하다	317
자발의 어머니가 아들을 타이르다	320
황향이 아버지의 이불을 덮혀주다	322
돼지를 잡아 아들에게 신의를 가르친 증삼	325
어머니께 지극히 효도한 문제	328
은 정신을 한곳에 골몰하다	330
손숙오가 머리 둘 달린 뱀을 용감히 때려죽이다	333
맹자의 어머니가 세번 이사를 하다	336
대의를 위해 부모형제정도 불사하다	339
기창이 활쏘기를 배우다	342
울바자너머로 공부를 한 가규	344
어려서부터 성실했던 안수	346
장설이 대학사를 사양하다	348
화씨벽을 그대로 조나라에 돌려오다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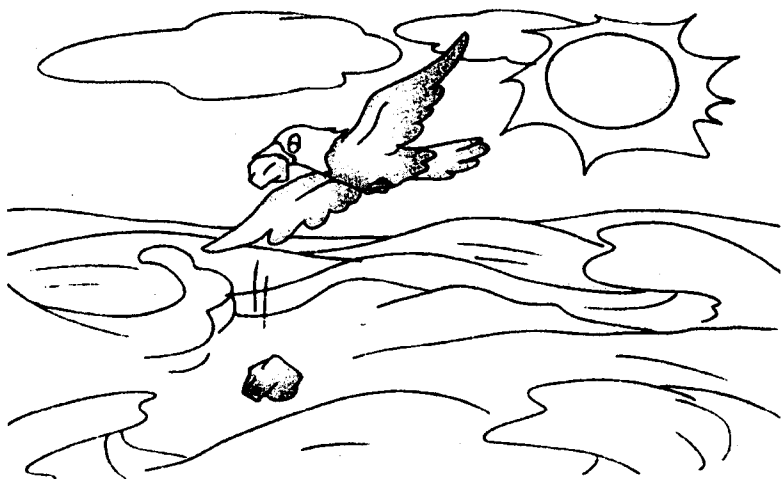


1. 정위가 바다를 떠우다

산서성 동남부에 위치한 장자현에는 발구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다. 이름난 장하가 바로 발구산에서 발원하여 구불구불 흘러내린다.

발구산에는 뽕나무 비슷한 나무들이 자라고있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를 산뽕나무라고 부른다. 산뽕나무숲에는 《정위》라고 부르는 작은 새가 살고있었다.

몸뚱이가 검은 정위새는 작은 까마귀를 방불케 한다. 하지만 부리는 희고 발은 붉은색이며 머리에는 여러줄의 무늬가 돋쳐있어 까마귀와는 다르다. 정위새는 늘 처량한 울음소리로 《정위! 정위!》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마치도 말 못할 가





습 아픈 사연을 하소연하는듯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새를 《정위새》라고 불렀다.

발구산은 장자현의 서쪽에 있는데 정위새는 늘 서산의 조약돌이나 작은 나무가지들을 물고 동쪽으로 날아가서 큰 파도가 밀려오는 동해바다에 떨어뜨리곤 했다. 정위새는 그렇게 하기를 매일 반복하면서 동해바다를 매우려고 했다.

하다면 정위새의 힘으로 정말 동해를 메울수 있을까? 물론 어렵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위새는 왜 바다를 매우려고 애쓰는것일까?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깃들어있다.

정위는 원래 태양신인 염제의 딸이었다. 어렸을 때 중원에서 그 애를 《와》라고 불렀기에 사람들은 모두 개를 《녀와》라고 일컬었다.

염제는 온종일 무척 바빠 보냈다. 그는 날마다 이른아침이면 동해에 가서 태양이 떠오르는것을 지휘했는데 태양이 서산에 진후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녀와는 무척 영리하고 귀여운 애였다.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면 자기 혼자서 놀곤 했지만 언제 한번 운적이 없었다. 녀와는 늘 예쁘게 꾸민 빨간 신을 신고 전야를 뛰어다니면서 여러가지 들꽃들을 꺾어서 머리에 꽂아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그 애는 동쪽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불덩이 같은 태양을 보면서 너무도 기뻐 퐁퐁 뛰었다. 한것은 그것이 아버지가 이뤄놓은 장거이기때문이었다. 따사로운 해빛을 땀땀 받은 삼라만상은 생기와 활력이 넘쳐났다. 이 땅우의 광명과 따사로움이 모두 아버지가 보내온것이라고 생각한 녀와는 한없는 자호감을 느꼈다.

녀와는 때론 동해가에 가서 해돋이를 구경하곤 했다. 매년 수려한 아침노을을 배경으로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며 불



은 해가 지평선위로 동실 떠오를 때마다 너와는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태양이 떠오르는 곳은 어떤 모습일까?》

너와는 늘 그것이 궁금했다. 그 애는 태양이 떠오르는 동해너머의 그곳에 무척이나 가고싶었다.

하지만 너와는 너무 어렸다. 태양이 떠오르는 곳은 동해에서 몇억만리나 떨어져있는 《귀허》에 있었다. 그곳은 너무도 뜨거워서 어린이들은 도무지 견딜수가 없다면서 염제는 한사코 너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그것때문에 너와는 늘 뿔로통해했다.

《귀허》는 너와에게 있어서 유혹을 떨쳐버릴수 없을만큼 신비한 곳이었다. 너와는 기약도 없는 아버지의 허락을 더는 기다릴수만 없었다. 어느날 너와는 아버지가 나가자 곧 동해에 뛰어들어 《귀허》를 바라고 해염을 치기 시작했다.



해염을 칠수록 녀와는 기분이 즐거워났다.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르는 명승지에 이를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은 한껏 부풀어만 올랐다. 하지만 어린 녀와에게 있어서 목적지는 아득히 먼 곳이었다. 한참후 녀와는 기진맥진하여 더는 해염을 칠수 없었다. 문득 짐채같은 파도가 밀려와 녀와를 삼켜버렸다. 녀와는 파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다 써보았지만 더는 움직일수가 없었다. 녀와는 아버지곁에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채 끝내 익사하고야말았다.

사람은 죽었지만 령혼은 살아있었다. 녀와는 기어이 동해를 메우고야말겠다고 욕별렸다. 하여 그의 령혼이 작은 새로 변했다. 머리에 꽂았던 들꽃은 꽃무늬로 변했고 발에 신었던 빨간 신은 빨간 발로 변했다.

정위새는 조금도 게으름 없이 서산에서 조약돌과 나무가지들을 물어다 동해에 떨어뜨렸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 바다를 메웠다. 그는 광풍폭우가 몰아쳐도 비바람을 헤가르며 바다메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때론 바다가 너무 가깝다보니 성난 짐승처럼 포효하는 파도가 또다시 그를 삼켜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정위새가 날아와 바다메우기를 계속했다.

웬 정위새가 그렇게 많은걸까? 사실 정위새는 해연과 짝을 이루었됐다. 까난 새끼들중 암컷은 엄마 정위를 닮고 수컷은 아빠 해연을 닮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비바람을 맞받아 용감히 날았다. 그래서 새끼정위는 나래를 굳힌후 엄마처럼 이악스럽게 계속 동해를 메웠던것이다.

작디작은 정위새가 무서운 파도가 포효하는 바다와 도전하여 대를 이어 바다를 메워갔다는것은 실로 대단한 항쟁정신이 아닐수 없다. 하여 사람들은 정위새를 동정하고 경모하면서 여러가지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원금(冤禽)》이라



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서조(誓鳥)》라고 불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지조(志鳥)》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정위새가 태양신 염제의 딸이라는것을 상기하며 《제녀작(帝女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후에 사람들은 정위새를 기리기 위하여 동해가에 《정위가 바다메우기를 맹세한 곳》이라는 고적을 만들었다.

2.례의를 지켜 공로를 남한테 돌린 범문자

춘추시대 범문자는 진(晉)나라 상군의 부장군이였다. 지용을 겸비하고 지휘에 능란한 그는 전역때마다 승전고를 울렸다. 사람됨이 착실한 그는 공명과 리욕을 멀리한데서 별반 승진하지는 못했지만 장병들의 한결같은 칭송을 받았다.

어느 한차례 전역에서 범문자는 여러 장군들과 함께 작전을 지휘하여 싸웠는데 지휘가 능숙한데다가 병사들의 사기가 충천하다보니 일거에 적들을 물리치고 첩보를 올렸다.

얼마후 전군의 장병들은 머나먼 싸움터에서 개선하여 조정으로 돌아왔다. 열을 지어 거리에 나온 백성들은 정소리, 북소리 높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개선장병들을 뜨겁게 맞아주었다. 범문자는 일부러 다른 장군들을 앞에서 걷게 하고 자기는 맨뒤에서 따라왔다.

장병들의 가족들도 환영대오속에 끼여 승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자기의 혈육들을 영접하였다. 범문자의 아버지 범무자도 전투공로가 혁혁한 장군이였는데 그 역시 아들을 보고싶은 마음이 급하여 일찌감치 집에서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개선하



는 대오가 련속 지나갔지만 아들의 모습이 종시 보이지 않아 마음이 불안해난 로인은 초조한 마음으로 대오를 살펴보면서 손에 식은땀을 쥐고있었다.

호호탕탕한 개선대오가 다 지나간후에야 로장군은 비로소 아들을 볼수 있었다. 원래 범문자는 대오의 맨 끝찌에서 걸어 오고있었던것이다.

로장군은 얼른 달려가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어루쓸어주었다. 그는 아들을 훑어보면서 급히 물었다.

《애야, 네가 빨리 돌아오기를 에타게 기다리는 이 애비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나?》

범문자는 그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버님, 승리하고 조정으로 돌아오는 우리를 이토록 뜨겁게 맞아주는것은 전군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걸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면 대장군의 영예를 빼앗는게 아니겠사옵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로장군은 웃으면서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네가 이렇게 대공을 세우고도 몸을 낮추니 이 애비가 시름을 놓아도 되겠구나. 영예나 명성은 모두 보잘것 없는것이니 언제나 겸손하게 사양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이나 세상을 마주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로를 탐내서 서로를 해치는 화를 면할수 있느니라.》

얼마후 국왕은 범문자를 불러 크게 치하해주면서 대장군을 위로하듯이 성대하면서도 정중히 대접하였다. 하지만 범문자는 의연히 겸손하게 례의를 지키면서 국왕에게 여쭙었다.

《이번 전역에서 이길수 있던것은 모두 대장군께서 군사들을 뛰어나게 통솔하여 치밀하게 지휘하고 또 모든 장병들이



함께 용감히 싸워주었기때문인줄로 아옵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공로도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국왕은 용감하면서도 겸손한 이 대장군을 더욱 총애하게 되었고 공로를 남한테 돌리는 범문자의 미덕은 조정의 모든 문무백관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3. 과부(夸父)가 해를 쫓다

가없이 넓고 푸른 하늘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누비는 해는 동쪽에서 솟아서 서산으로 넘어간다.

부채살같은 아침해살로 누리를 밝히며 서서히 떠오른 태양은 하루동안 하늘에서 유유히 노닐다가 저녁이면 찬란한 저녁노을속에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진다. 해는 인간세상에 따사로움과 광명을 가져다주고 대지에 생기를 듬뿍 안겨준다. 그러나 태양이 서산에 지고나면 대지는 끝없는 암흑, 추위, 공포, 적막과 공허속에 빠져든다.

광명은 생명을 상징하지만 암흑은 죽음을 의미하기에 사람들은 광명을 지향하고 세월이 흐르지 말기를 바란다. 하여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면서 태양이 영원히 지지 않고 언제나 인간세상과 동반해주기를 갈망한다.

한 거인이 문득 해를 쫓아가서 가는 세월을 막으려는 기발한 생각을 했다. 그가 바로 과부(夸父)이다.

과부는 황야에서 하늘을 떠이고 우뚝 솟아있는 《성도산》에 살고있었다. 힘이 천하무적이고 정력이 왕성한 과부는 두마리의 누른 뱀을 귀걸이로 삼아 귀에 걸었고 손에도 이따금씩



누른 뱀 두마리를 가지고 놀았다. 과부의 재력을 말할라치면 태양과도 관련된다. 그는 중원의 토지신 《후토》의 손자이다. 후토의 아버지는 물의 신 공공이고 할아버지는 불의 신 축융이다. 축융은 또 태양신 염제의 후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과부의 몸에는 토지신, 물의 신, 불의 신의 유전자가 있을뿐만 아니라 또 태양신의 혈통도 숨배여있다.

과부가 왜 태양을 쫓으려 했을까? 혹시 태양이 따뜻함과 광명, 그리고 영원한 세월을 줄수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태양이 지지 않고 영원히 대지를 비추도록 붙잡아두기 위해서일까? 그렇지 않으면 태양과 함께 하늘을 노닐고싶어서일까? 아무튼 누구도 그가 왜 태양을 쫓으려 하는지를 똑똑히 알지 못했다.

태양이 반공중에 떠올랐다가 서서히 서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과부는 태양을 따라 나는듯이 달렸다.

퇴약별을 내리쬘이던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서산





에 지려고 했다.

과부는 번개같이 순식간에 천리를 달리면서 태양과 경주를 벌렸다.

태양은 번마다 《우곡》이라고 부르는 곳에 내려앉곤 했다. 해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어느새 또 여기에 와서 내려앉으려 했다. 바로 그때 과부도 우곡에 다달았다. 우곡의 산봉우리에는 과부의 그림자가 거대한 석양에 비꼰고 주변은 온통 눈이 부시게 밝아있었다. 흥분되어 번쩍 추켜든 과부의 두팔은 마치 지는 해가 남겨놓은 붉은 노을을 잡은듯했다. 우곡에는 과부의 우렁찬 환호성이 메아리쳤다.

하지만 태양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앉고있었는데 그 속도는 갈수록 빨랐다.

급해난 과부의 온몸에는 비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목구멍에서는 겨불내가 확확 풍겼다. 벌써 하루동안 꼬박 달리고보니 기진맥진했던것이다. 계속 해를 쫓으려면 수분과 영양을 보충해야 했다.

황하와 위수가로 나는듯이 달려간 과부는 옆드려서 단숨에 위수와 황하의 물을 말끔히 마셔버렸다. 하지만 그 두갈래의 강도 그의 갈증을 달래지 못했다. 그는 또 북쪽으로 달려갔다. 북방의 안문산밖에는 《한해》라고 부르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과부는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던것이다.

과부는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프데다가 정력도 거의 다해갔지만 아직 한해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계속 한해를 바라고 달렸다. 그러다가 더는 갈증을 참을수 없어 과부는 중도에서 목이 말라 죽고말았다.

과부가 산이 무너지듯 땅에 쓰러졌다. 그의 지팽이가 옆으로 나딩굴어가더니 순식간에 북송아나무숲으로 변했다. 그 북